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 잇수다

매뉴얼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잇는 수다,
〈차별잇수다〉를 제안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별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야기를 한 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걱정됩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기거나 오히려 나를 탓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차별잇수다〉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움츠러들었던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 일상의 차별을 더 많이 소란스럽게 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지지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평등의 감각을 서로 배우며 차별에 맞서는 힘을 키울 수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모아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전국 방방곳곳의 이야기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존재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모두의 삶을 위해 평등을 향한 소란을 시작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온라인 차별잇수다(<https://sooda.govcraft.org/>)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빠띠”와 함께 합니다.

알아두기

참여자의 약속

- 모두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규정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공감하고 경청합니다.
- 비슷한 이야기 속에선 공동의 경험을 찾아가고 다른 이야기 속에선 차이를 배워 갑니다.
-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이 너무 자주 또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 ‘이야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같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지만, 떨어져 있던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차별이 모두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토론합니다.

이꿈이의 역할

차별잇수다를 진행하는 이꿈이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 프로그램 준비하기

- 가능하다면 사전에 이꿈이를 정합니다. 이꿈이는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숙지한 후 진행합니다.
- 참여자들이 진행방식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하기

- 매뉴얼은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로의 경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하고 경청하며, 함께 일상 속 실천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누군가 발언을 독점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로그램 마무리하기

참가자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사진으로 찍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메일로 공유해 주세요. 텍스트를 정리하여 온라인 차별잇수다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I. 준비물

- 활동지, 펜, 감정스티커
- 온라인 차별잇수다에 참여할 수 있는 핸드폰 또는 노트북

2. 구성 및 프로그램

소요 시간 2시간 이내

모둠 구성 최대 8명

(8명 이상인 경우에 모둠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모둠별로 이꿈이가 진행을 담당합니다)

도입 (15분)	<p>step 1 이꿈이가 참여자들에게 워크숍의 취지와 진행 방식을 공유합니다.</p> <p>step 2 참여자들과 세 가지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나는 ooo한 누구입니다')</p> <p>step 3 참여자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을 공유합니다.</p>
열기 (10분)	<p>참여자들이 자신이 겪은 차별 경험을 갑자기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꿈이가 차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일상에서 경험한 차별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간입니다.</p> <p>※ 이꿈이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매뉴얼의 <이것도 차별일까요?>의 사례나 온라인 차별잇수다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 누가 봐도 명확한 차별 사례보다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례들을 얘기해주세요. ▶ 한 가지 사례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상력을 촉진해주세요. ▶ 활동지의 문장 형식에 맞춰 제시하면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공유할 수 있어요.
전개 I 차별 경험 공유하기 (30분)	<p>활동지에 각자 자신의 차별 경험을 작성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p> <p>※ 작성할 부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나는 ~~ 한 일을 겪었는데 ~~ 한 감정을 느꼈어. ② 그때 나는 ~~ 했는데/~~ 하지 못했는데 ③ 왜냐면 ~~ 했기 때문이야. <p>※ 이꿈이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 I>에서는 차별을 경험했을 때 각자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든,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든,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든 이후에 이어진 행동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을 당했다'는 기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못했는지를 짚으면서 경험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p>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3개의 문장으로 차별의 경험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면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꿈이는 참여자들이 활동지의 해당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작성이 끝나면 모둠 안에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이꿈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참여자들이 고루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요약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p>

전개2 대항적 말하기 (30분)	<p>활동지 해당 칸에 그대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대응방식을 적습니다.</p> <p>step 1 작성 후에 자신의 활동지를 옆 사람에게 전달합니다.</p> <p>step 2 다른 사람의 활동지에 대응 방식을 제안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시도해본 꿀팁, 응원 메시지 혹은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을 적습니다.</p> <p>step 3 다른 사람들이 활동지에 적어 준 메시지 중 인상적인 것을 각자 한 두 개 공유합니다.</p> <p>※ 이꿈이 t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개2>에서는 불편함/답답함/상처/의문을 남긴 경험에 대해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며 힘을 길러봅니다. '만약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대응의 내용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법률적/제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제도적 대응이 언제나 최선이거나 유일한 것만은 아니기에,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으며, 참여자가 했던 선택을 그대로 지지하고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이 할 수 있는 일,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다뤄봅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나누는 과정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나 이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대항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함께 말하기 (10분)	<p>step 1 이꿈이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차별금지법과 이번 활동의 연관성을 참여자들에게 설명해주세요.</p> <p>step 2 활동지 겉면을 참고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소개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세요.</p>
마무리 (10분)	<p>오늘 나눈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아카이빙하고, 참여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 하는 시간입니다.</p> <p>step 1 참여자들이 작성한 활동지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략조직팀에게 전송합니다.</p> <p>step 2 소감을 나누며 워크숍을 종료합니다.</p>

이것도 차별일까요?

사례 하나. 장애인이라서 더 무시하여 쫓아낸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찹쌀떡을 파는 분들을 보았어요. 여자 분과 그 분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지적장애인으로 보였어요. 그 남자분이 떡사라고 외치고 있는데 옆에 술집 주인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라' '손님들에게 방해된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술 마시고 길에서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다고, 왜 이분들에게만 그러냐고 그 술집 주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지만 여전히 짹짹합니다. 손님들 핑계였지만 장애인이라서 더 무시하여 쫓아낸 것 같은데, 이거 차별 맞는 거죠?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았을까요?

사례 둘. 계속 온라인 쇼핑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저는 원래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옷가게에 가면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서 선택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가게 점원들의 시선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위아래로 쳐다보거나 불친절한 일은 다반사이고, 손님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직접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옷을 하게 됩니다. 계속 온라인 쇼핑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사례 셋. 전라도 출신이라서 그런걸까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십수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전라도보다 서울이 익숙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최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고 집주인을 만나 구두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도장만 찍으면 마무리되는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이 돌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문득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출신지역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신지역이 전라도라고 계약이 취소된건 아닐지... 정말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례 넷. 어려보이는 여성이라서 일까요.

어떤 활동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상 대표로서 기자나 외부 인사들을 만날 일이 많은데, 상대방이 제가 어려보여서 그런지 은근슬쩍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때 저보다는 나이 있는 남성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저에게는 대표와 인터뷰 하고 싶는데 어디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례 다섯. 귀화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에게 외국인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상 중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국어를 어쩔 이리 잘하는지 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런 질문들을 들어야 할까요?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제 삶의 궤적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대항적 말하기와 차별금지법

개개인이 겪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 법, 제도, 관습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문제로부터 거리를 둔 채, 차별의 사회구조를 인식하며 다른 말과 다른 실천을 상상하고 공유했습니다. 만약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진다면, 다른 조건에 놓여있다면, 주변에 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하고 상상해보는 것은 다른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조금씩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고, 대항적인 방식을 고민해보고 서로 연결해보는 이 과정 자체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동시에,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지 '피해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고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해보면서 사회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차별과 혐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일상에서 행동할 때 단단해 보이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대항적 말하기의 실천이 다양한 현장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년 1월 5일에 발족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연대체입니다. 전국의 126개의 다양한 단체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퍼낸날 2019년 4월 16일

퍼낸곳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디자인 언제나봄그대곁에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2017](https://twitter.com/equalact2017)

후원계좌 1006-201-507617 (우리은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 사업은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지원으로 진행합니다)